

퍼포먼스

계간 <하나은행>이
만난
대한민국
문화예술계
100인

가구디자이너 최병훈

당신의 작품에서 '나무와 돌'은 어떤 의미인가?

나무와 돌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한 가장 인간 친화적인 소재이다. '돌의 자연미'와 '나무의 본질'에서 얻어지는 물성을 통해 보다 인간적인 심상에 다가가기 위한 태초의 형상을 재해석한다. 자연이 지닌 영적인 힘이 내 작품을 통해 부활하도록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독일 '비트라디자인박물관'에도 작품이 소장되었다. 외국인이 주목하는 당신 작품의 매력은?

우선 '다름의 정서'다. '다름의 정서'는 '다름의 미의식'을 낳고 '다름의 미의식'은 '다름의 가치'를 생성한다. 서구의 넘치는 표현주의와 달리 내 일련의 작품은 '고요함'이 그 내면에 자리한다.

가구의 실용적인 측면을 넘어 사용자에게 부드러운 명상을 유도하고, 이로 말미암아 무한한 고요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능케 한다.

도(道)와 선(禪)에서 비롯된 숭고하고 절제된 미의식이 만들어낸 '다름의 가치'가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가구디자이너 최병훈은 '나무와 돌'로 태초의 형상을 재해석한다. 과한 꾸밈이나 수식이 없는 그의 작품은 '자연주의' 철학을 담고 있다. 부드러운 나무와 단단한 성질의 화강암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은 독창적인 형태와 접근 방식으로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1989년 가을 • 15호

